세계 빛의 해 2015

DOI: 10.3938/PhiT.24.015

이 병 호

The International Year of Light – 2015

Byoung-ho LEE

With the proposal of UNESCO, the United Nations proclaimed the year of 2015 as the International Year of Light and Light-based Technologies (IYL). The opening ceremony of IYL 2015 was held at UNESCO in Paris during January 19-20, 2015. Various institutes and organizations in 85 countries are participating with various activities in IYL 2015. In Korea,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solution in support of IYL 2015 on February 16, 2015. Diverse activities organized by various institutes are underway in Korea.

개 요

올해는 유엔(United Nations)이 지정한 ‘세계 빛과 광기술의 해(International Year of Light and Light-based Technologies)’이다. 줄여서 ‘세계 빛의 해(IYL 2015)’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세계 빛의 해를 지정한 목적은 빛과 광기술의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인식시키고 광학이 우리 삶을 얼마나 변화시켜왔는가를 알리며, 인류가 맞닥뜨린 에너지, 교육, 식량, 통신, 복지 등의 문제에서 광학과 광기술이 어떻게 그 해법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리자는 것이다.

저자약력

이병호 교수는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전기컴퓨터공학 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1993년) 1994년 9월부터 서울대학교 전기정보 공학부에 재직 중이다. 미국광학회(OSA), 국제광학회(SPIE),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의 석학회원(Fellow)이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정회원이 다. 한국광학회와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미국광학회에서 이사(Director-at-Large)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여왔다. 전공분야는 3D 디스플레이와 플라스모닉스이다. (byoung-ho@snu.ac.kr)

1. 추진과정과 참여기관

‘세계 빛의 해’의 유엔 지정은 유럽물리학회(European Physical Society, EPS), 미국광학회(Optical Society of America, OSA), 국제광학회(SPIE), 미국물리학회(American Physical Society), 미국물리단체연합회(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국제전기전자공학회 포토닉스 분과(IEEE Photonics Society), 독일물리학회(DPG), 국제물리학회(Institute of Physics) 등이 협력하여 상당 기간 동안 노력하여 성사되었다.^[1]

먼저 유네스코(UNESCO) 실행이사회에서 IYL 2015 지지결 의안이 2012년 10월에 통과되었고, 2013년 11월에 IYL 2015 결의안이 유엔의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유엔 결의안은 2013년 12월 20일의 총회(UN General Assembly)에서 채택되었다(부록 1). 보다 자세한 정보는 IYL 2015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2]

필자는 미국광학회의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그 추진과정을 보았는데, 특히 미국의 학술단체들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광학과 포토닉스(photonics) 분야의 중요성을 미 의회 등에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그 노력의 1차 결과로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조 산업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 광학기반의 생산기술을 연구하는 조직을 신설해 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3]

IYL 2015의 출범은 세계 85개국 100여 개 기관의 참여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훨씬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행사들을 올해에 수행하고 있다. IYL 2015의 총괄 책임은 John M. Dudley 교수(University of Franche-Comte in Besancon, France)가 IYL 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ISC)를 대

REFERENCES

- [1] http://www.osa-opn.org/home/articles/volume_26/january_2015/features/2015_the_international_year_of_light/#.VSnCb_msVoA.
- [2] IYL official site: <http://www.light2015.org/>.
- [3]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4/10/03/fact-sheet-president-obama-announces-new-manufacturing-innovation-institut>.

Fig. 1. IYL 2015 logo.^[2]

표하여 받고 있으며, UNESCO International Basic Science Programme 및 Secretariat at The Abdus Salam International Centre for Theoretical Physics(UNESCO Category 1 Institute)와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관으로는 한국광학회가 대표기관(National Node) 역할을 맡고 있고 한국물리학회 등 많은 기관이 동참하고 있다.

2. 왜 2015년인가?

올해를 '세계 빛의 해'로 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알하이삼(알하젠, Al-Haytham)이 광학에 대해 연구한 후 약 1,000년이 되는 해
- 프레넬(Fresnel)이 빛의 파동성에 대해 연구한 후 약 200년이 되는 해
- 맥스웰(Maxwell)이 전자파 이론을 만든 후 150년이 되는 해
- 아인슈타인(Einstein)이 일반상대성이론을 발표한 후 100년이 되는 해
- 펜지어스(Penzias)와 윌슨(Wilson)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발견한 후 50년이 되는 해
- 가오(Kao)가 광섬유에 대해 연구하여 광통신의 길을 트은 후 50년이 되는 해

유럽과 미국의 학회들이 중심이 된 IYL ISC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획기적 업적들의 기념해가 겹치는 올해를 좀처럼 보기 드문 최적기로 삼아 빛과 그 응용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고 부흥시키고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유엔의 지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1]

3. 세계 빛의 해 로고

그림 1은 IYL 2015의 로고를 보여준다.^[2] 그림의 가운데는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생명의 근원, 지속성과 보편성을 뜻한다. 둘레의 깃발들은 국제성과 포괄성을 의미하며, 다양한 색깔들은 넓은 스펙트럼, 즉 빛이 과학, 예술, 문화, 교육 등

Fig. 2. Opening Ceremony of IYL 2015 (Jan. 19 ~ 20, 2015 at UNESCO, Paris) (Courtesy of Rémi Meyer).^[5]

Fig. 3. Message of Ban Ki Moon, Secretary-General of UN, for the Opening Ceremony of IYL 2015.

다양한 분야에 적용됨을 의미한다.

국내외 행사

1. 세계 빛의 해 개막식

IYL 2015 개막식은 지난 1월 19일~20일에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UNESCO)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파리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한 테러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행사가 위축될까 싶었지만, IYL 개막식은 1,500명이 참여하여 매우 성황리에 열렸다(그림 2).^[2,4,5]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메시지 낭독으로 행사가 시작되었다(그림 3, 부록 2). 우리나라에서는 우정원 이화여대 교수, 현경숙 세종대 교수, 그리고 필자가 참석하였으며 동아시아언스 기자가 취재하였다.

총 60여 명의 연사가 길고 짧은 강연 혹은 연설을 하였으며, 그 중에는 Ahmed Zewail(Caltech), Steven Chu(Stanford

REFERENCES

- [4] SPIE website for IYL: <http://spie.org/x93905.xml>.
- [5] <http://news.donga.com/3/all/20150122/69236880/1>.

University), William Phillips(NIST 및 University of Maryland), Serge Haroche(Collège de France), Zhores Alferov(St. Petersburg Academic University 및 Russian Academy of Sciences) 등 다섯 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의 강연이 포함되었다. 특히, William Phillips 박사는 액체질소를 이용한 실험을 시연하면서 인상적인 강연을 하였다. 다수의 연사들이 이븐 알하이삼(Ibn Al-Haytham)의 업적을 칭송하였지만, 아인슈타인(Einstein)의 업적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Zhores Alferov 박사 등이 레이저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Charles Townes가 건강하다고 말했지만 이 행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Townes 박사는 99세를 일기로 작고하였다.^[6]

노벨 물리학상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Sune Svanberg 박사는 “Light and Nobel - The Fascination of Science”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여 빛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소개하였고 노벨상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광과학에 대한 좋은 강연들이 있었던 점에 반해 광기술에 대한 발표가 적어 아쉬웠지만, Bernard Kress 박사의 Google X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다. IYL 2015의 취지는 우수한 광학연구를 알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광학과 광기술이 인류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자는 것이어서, 이에 따라 가나, 튀니지, 멕시코,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베트남, 필리핀, 케냐 등 다양한 국가의 연사들이 발표를 하여 명실공히 세계적 행사임을 보여주었으며, 저개발국가에 필요한 태양광 발전 기술, 1불 안경^[7] 등의 적정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다루어졌다. 또한, 국제천문연맹(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의 빛 공해 줄이기 운동과 밤하늘 별보기 캠페인 등도 소개되어 내용을 더욱 풍성히 했다.

이와 같은 IYL 2015 개막식을 필두로 한 해 동안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 유럽에서는 EPS가, 미국에서는 SPIE와 OSA가 매우 적극적이다. 특히, SPIE는 이미 세계 빛의 해를 기념하는 사진 경연대회도 가졌으며 빛의 주요 응용 50가지를 설명하는 책자도 제작하여 IYL 2015 개막식에서 배포하였다(부록 3).^[8]

2. 국회 지원 결의안과 우리나라 세계 빛의 해 선포식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광학회의 노력으로 지난 해 말부터 다양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졌으며,^[9] 11월에 민병주 의원이 ‘2015년 세계 빛의 해 지원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하였고, 올해 2월 1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수정, 통과되었다(부록 4). 이를 기념하여, 3월 11일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5 세계 빛

Fig. 4. IYL 2015 Proclamation Ceremony at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March 11, 2015; Courtesy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의 해 선포식 및 기념 세미나’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 부처 인사, 20여 개의 학술단체, 산업협회, 국책연구소 등의 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개최되었다(그림 4). 민병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광학회가 주관한 이 행사에 한국물리학회도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선포식에 이어진 기념 세미나에서는 남창희 교수(IBS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 GIST)가 한국물리학회 추천 연사로서 “빛과 노벨상”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하였고, 그 외에도, 김병용 교수(KAIST)가 “빛 연구의 역사와 전망”, 필자가 “디스플레이 기술의 현황과 전망”, 신용진 교수(조선대)가 “빛 산업의 현황 및 전망”, 이명균 교수(서울대)가 “하늘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였다.^[10]

3. 국내의 행사

이미 ‘세계 빛의 해’와 관련하여 KBS 1TV, KBS 1 라디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YTN, 한겨레신문, 전자신문, 서울신문, 연합뉴스, 대덕넷 등 많은 언론에서 다양한 보도를 하였고 특집 프로그램도 제작된 바 있다.^[9] 또한, 수학동아는 2015년 1월호를 세계 빛의 해 특집호로 제작한 바 있으며, 소년한국일보는 3월부터 IYL을 기념하여 “빛을 알면 과학이 보여요”를 연재하고 있다.

REFERENCES

- [6] <http://newscenter.berkeley.edu/2015/01/27/nobel-laureate-and-laser-inventor-charles-townes-dies-at-99/>.
- [7] <http://www.onedollarglasses.org/>.
- [8] “Celebrating Light - 50 Ways Light-based Technologies Enrich Our World,” SPIE (Bellingham, WA, USA, 2015).
- [9] Byoung-ho Lee, Optical Science and Technology 19(1), 2 (2015) (in Korean).
- [10] “IYL Proclamation Ceremony and Seminar,” Optical Society of Korea (Mar. 11, 2015) (in Korean).

ITYL 2015를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각종 학술 대회와 광 산업 전시회, 청소년 대상 행사, 밤하늘 밝기 측정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거나 열릴 예정이다. 그 중 몇 가지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Electronics Manufacturing Korea의 일환으로 개최, 서울 COEX, 4월 1일 ~ 3일 (한국 광학회,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등)
- 빛 분야 진로교육 주간: 4월 13일 ~ 17일 (한국과학창의재단)
- 과학탐구토론대회: 고등학생부 주제 '빛의 응용', 4월 ~ 7월 지역예선 및 본선 (한국과학창의재단)
- '모래랑 빛이랑' 체험전: 4월 21일 ~ 6월 30일 (국립중앙과학관)
- Asia-Pacific Optical Sensors Conference: 제주 롯데시티호텔, 5월 20일 ~ 22일 (한국광학회, SPIE, OSA, IEEE Photonics Society)
- LED & OLED Expo, LASER Expo, LED 산업 포럼: KINTEX, 6월 23일 ~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 한국광학회 25주년 및 세계 빛의 해 기념 학술대회: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7월 13일 ~ 15일 - 특별 행사: "광기술의 미래" 특별 워크숍 (참석자: OSA, SPIE, EPS, 일본응용물리학회, 중국광학회 임원진) 및 빛 사진전/이미지(image)전
- Conference on Lasers and Electro-Optics Pacific Rim 2015: 부산 BEXCO, 8월 24일 ~ 28일 - 세계 빛의 해 기념 석학(Hiroshi Amano 교수 등) 대중강연회 및 산업체 강연회 (한국광학회, 한국물리학회, OSA, IEEE Photonics Society, 일본응용물리학회)
- Photonics Korea, 국제 광통신 표준화 기구 정기총회: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10월 7일 ~ 9일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주시, 산업통상자원부)
- 눈의 날: 빛의 해와 연계된 주제로 대중 강연, 11월 11일 (대한검안학회, 대한안과학회)

이외에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천문학회, 한국우주과학회 등이 다양한 자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에 설명한 Hiroshi Amano 교수 외에도 Shuji Nakamura 교수가 8월 18일 ~ 21일에 대구 EXCO에서 열리는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의 International Meeting on Information Display 2015에 참석하여 기초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201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세 명 중 두 명이 올해 방한한다.

결 언

광학과 광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빛과 레이저는 물리뿐 아니라 화학, 생명 과학 등의 다양한 자연과학에서도 중요한 탐구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응용은 디스플레이, LED 조명, 광통신, 홀로그래프,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광 데이터 저장장치, 광계측 및 광 센서, 태양전지, 의료용 레이저, 바이오 이미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Townes는 자신이 이론적 토대를 만든 레이저와 직접 관련하여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2000년까지 13명이라고 했었는데,^[11] 그 이후에도 레이저 혹은 빛과 관련하여 여러 번 노벨상이 수여되었다. 2005년, 2009년, 2012년의 노벨 물리학상이 그리하였으며, 2014년에는 노벨 화학상(조분해능 형광 현미경)과 노벨 물리학상(청색 LED)이 모두 빛과 관련한 연구개발에 주어졌다.

모쪼록, 세계 빛의 해 2015가 우리나라 광학 연구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광학과 광기술의 중요성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에서는 빛과 관련된 대형 연구과제들이 있다.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으로 메타물질 연구가 시작되었고, 기가코리아(Giga Korea) 프로그램으로 홀로그래프 등 3D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진행 중이며, 또한, 초강력 레이저광학 IBS 연구단도 있다. 우리나라의 광산업도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의 역할이 지대하고, 양자점(quantum dot) 필름을 이용한 액정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플렉시블(flexible) 디스플레이 등에서 선도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뛰어난 광학 및 광기술 연구결과들이 풍성히 쏟아지기를 기대한다.

[부록 1] 유엔의 세계 빛의 해 결의안 (발췌)

68/221. International Year of Light and Light-based Technologies, 2015

(중략)

1. *Decides* to proclaim 2015 the International Year of Light and Light-based Technologies;
2. *Invites*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indful of the provisions of the annex to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1980/67, to facilitate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Year, in collaboration with Government,

REFERENCES

- [11] C. H. Townes,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Quantum Electronics **6**(6), 829 (2000).

relevant organiz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and other relevant academic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3. *Stresses* that the costs of all activities that may arise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resolution above and beyond activities currently within the mandate of the lead agency should be met from voluntary contributions, including from the private sector;
4. *Encourages* all States, the United Nations system and all other actors to take advantage of the International Year to promote actions at all levels, including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o increase awareness among the public of the importance of light science, optics and light-based technologies and of promotion widespread access to new knowledge and related activities;
5. *Requests*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indful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3 to 27 of the annex to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1980/67, to inform the General Assembly at its seventy-first ses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resolution, elaboration, inter alia, on the evaluation of the International Year.

71st plenary meeting
20 December 2013

[부록 2]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IYL 2015 개막식 메시지

THE SECRETARY-GENERAL

MESSAGE FOR THE OPENING CEREMONY
OF THE INTERNATIONAL YEAR OF LIGHT
Paris, 19–20 January 2015

Light is a unifying symbol that signifies wisdom and excites the imagination across the world.

Paintings and murals in all cultures show how artists have used light, shade and colour to illustrate mood and create atmosphere. Light is used in some therapies to promote health, and in religious ceremonies as aid to worship and reflection.

On the most fundamental level through photosynthesis, light is necessary to the existence of life itself. Light science has revolutionized medicine, agriculture and energy, and optical technologies are part of the basic infrastructure of modern communications.

For these reasons and more, light sciences are a cross-cutting discipline in the 21st century. As we strive to end poverty and promote shared prosperity, light technologies can offer practical solutions to global challenges. They will be particularly important in advancing progress toward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chieving the futur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addressing climate change.

As part of our efforts to spread the availability of light, my Sustainable Energy for All initiative aims to dramatically increase energy access, energy efficiency and the use of renewables by the year 2030. This will mean more light in homes, hospitals and enterprises - and that will translate into a safer, healthier and more productive future.

Our chief source of light as a planet - the sun - in being harnessed in new and exciting ways through solar power that offers a clean alternative to other sources.

The International Year of Light can be used to expand scientific cooperation,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advance education in the basic sciences, and engage talented young minds in our efforts to build lives of dignity for all.

Let there be a year of light.

BAN Ki-moon

[부록 3] SPIE가 제시한 빛의 주요 응용 50가지^[8]

3D Movies and Displays, 3D Printing, Agriculture, Aircraft Safety, Airport Screening, Art Studies, Cancer Diagnosis and Therapy, Car Safety, Climatology, Computer Chip Manufacturing, Data Storage, Dentistry, Diseas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Displays, Drones, Drug Verification and Safety, Elementary Particle Detection, Food Screening for Safety, Forensics, Global Positioning, Holography, Infrared Imaging, The Internet, Laser Fusion, Lasers, Lasers in Medicine, Lighting, Manufacturing, Mapping Our Planet, Mapping Our

Universe, Medical Imaging and Radiology, Microwave Technologies, Neurophotonics, Oceanography, Ophthalmology, Optical Tweezers, Photography, Photonic Integrated Circuits, Photosynthesis, Pollution Monitoring and Management, Quantum Encryption, Radio Communication, Scanners and Barcodes, Search for Extraterrestrial Life, Solar Cells,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Ultraviolet Technologies,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Wearable Technology, Weather Prediction

[부록 4] 2015년 세계 빛의 해 지원에 관한 국회 결의안

2015년 세계 빛의 해 지원에 관한 결의안
(발의: 2014년 11월 11일; 수정 통과: 2015년 2월 16일)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UN이 『2015년 세계 빛의 해(International Year of Light and Light-based Technologies 2015)』 선포를 결의하고, 세계 각국의 학술단체 및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대한민국에서의 『2015년 세계 빛의 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UN의 『2015년 세계 빛의 해』 선포를 지지하고, 국내의 광학 관련 단체의 『2015년 세계 빛의 해』 행사 추진계획과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후원을 적극 지지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2015년 세계 빛의 해』 행사가 광학 및 광응용 기술의 연구와 개발이 국가 산업경쟁력을 선도하는 중

요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일반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행사로 추진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2015년 세계 빛의 해』 행사 지원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신산업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언론 등 각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선도하는 데 앞장선다.

제언이유

2015년은 광학의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알하이삼의 광학연구 1000년이 되고, 맥스웰이 전자파의 존재를 예측한 지 150년이 되며,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 100년, 카오의 광섬유 연구 50년이 되는 해로, UN 총회(2013. 11. 25)는 『2015년 세계 빛의 해』를 선포하고, 그 목표 및 이념 실현을 위한 결의서를 채택하면서, 2015년을 광학 교육과 연구를 활성화하고 일반국민의 이해 증진을 촉구하는 기회로 활용토록 정부, 학계, 산업계 및 언론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음.

그 동안 대학의 혁신 잠재력은 증대되어 논문 등 연구성과가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광학 기초연구 성과와 그 응용기술 개발의 질적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인어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계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2015년 세계 빛의 해』 활동의 이념을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2015년 세계 빛의 해』 행사를 통하여 광학과 그 응용산업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이 높아지도록 국민을 비롯한 정부, 학계, 산업계 및 언론 등에 대하여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고 이를 선도하고자 하는 결의안을 제안함.